

제11강: 영국 바로크[1660~1730] 시대의 건축가

◆ 1교시: 영국의 바로크 시대 건축 1

▲ 영국 바로크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영국 바로크는 17세기 후반부 18세기 전반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1600년 초반부터 바로크가 시작되는 것에 비해 영국은 반세기 이상 늦었죠. 그 이유는 르네상스가 늦은 이유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죠. 중세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고 이탈리아와의 지리적 거리감이 이유이지요.

르네상스를 건축만이 아니라 문화 학문 사상 전 분야에서 늦게 받아들입니다. 바로크가 르네상스 바로 뒤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크도 늦게 시작된 겁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전부 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경향이 큼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정치적인 이유로 고전주의를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건축가가 필요한 거지요.

건축가의 자생적인 예술운동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저런 정치적인 목적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건축가나 양식이 찾아지면서 시작된 거죠. 바로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전복이 되었다가 다시 왕정복고가 일어납니다. 크롬웰 자신이 처형을 당합니다. 청교도 자체는 분명 개혁성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크롬웰 자신이 방법상으로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정이 다시 복고됩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이 됩니다. 의회의 권력 분산, 견제가 일찍부터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영국만의 자산이자 서양 문명에 중요한 기여의 내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17세기에 보면 휘그당과 토리당이라고 하는 양당 체제가 정립이 됩니다. 왕은 찰스 2세, 제임스 2세로 이어집니다. 전제정치를 펴지요. 그거와는 별도로 의회민주주의는 발달되어서 양당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고 배운 것이 미국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좀 다르지요. 프랑스는 항상 연합으로 가는데 영미권에서는 양당 체제가 확립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양당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 모델과 영미권 모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통합이 있으면서 대영제국이 탄생합니다. 일정 부분 발전을 계속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보면 크롬웰로 대표되는 청교도가 몰락하면서 여기도 가톨릭이 부활하게 되지요.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앵글리칸술츠라고 해서 영국 국교가 성립됩니다. 성공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교를 표방하지만 그 내용은 가톨릭적이죠. 헨리 8세가 정치적 이유로 봉합을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저 중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교 국가를 이루죠. 미국의 신교에는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영국 자체만으로는 가톨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신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왕이 노골적으로 가톨릭 편을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때가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인데요. 영국에서 경험론이라는 또 다른 자산이 적립되는 시기입니다. 자연과학과 철학에서 발전을 이룹니다. 프랑스의 자연과학이 데카르트 이후의 합리론에서 논리적 증명에 치우친데 반해서 영국의 자연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집중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고전물리 등의 개념, 마찰력, 힘 등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실험과 관찰. 철학에서는 존 루크를 필두로 해서 버클리, 흄스 등이 나오죠.

대륙 철학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선형적인 논리 체계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관찰해서 철학을 한다니까요. 미국에서는 존 듀이나 화이트니 경험주의 계열의 철학이 나옵니다. 쉬운 철학이지요.

사실 그건 대륙에서 보면 철학도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저 때 정착이 됩니다.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미권의 자본주의 체제도 정착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민간 세력이 정치권력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인프라를 가지고 행한 거지요. 상당히 변혁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좀 더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프랑스와는 많이 다른 거지요. 프랑스는 절대왕정으로 흐르면서 사회가 굉장히 단선적이 되지요. 토목 인프라 구축 쪽에서 발전해 나간 반면 영국은 세속권력과 기독교 쪽에서의 정신운동이 다원화되면서 물질적인 면은 영국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런던이 이것을 대표하면서 금융, 해상무역을 책임집니다. 서울보다 바다에 가깝죠. 해외 개척은 영국이 프랑스보다 빨랐죠. 타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침략일 뿐이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자본주의의 발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크 건축을 낳았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크리스토퍼 랜으로 대표되는 영국 바로크

이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바로크라는 양식으로 탄생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크리스토퍼 랜(Christopher wren)이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랜은 영국 바로크에서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집중도가 절대적입니다. 프랑스도 물론 독보적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뒤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면 영국은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학자 출신이라서 경험론적인 자연과학을 종합적으로 습득했죠. 또한 정치적 상황, 왕실, 가톨릭과도 잘 타협을 하면서 영국 바로크 시대를 열고 완성까지 시킵니다.

거꾸로 좁게 보면 가톨릭 세력, 넓게 보면 당시의 영국사회에서 요구한 새로운 건축양식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막연히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요.

건축가가 어느 정도 출세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합니다. 물론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더 이상 건축가가 아니라 장사꾼, 사장님이 되는 거죠. 반면 너무 고집을 부리면 불우하게 끝나죠.

분명히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서 구체적으로 재현해 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인데요. 그렇게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작품성을 잃지 않는 것이 건축가의 의무이겠지요. 그것을 랜이 잘 했다는 겁니다.

될 사람은 될 해도 됩니다. 운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런던 대화재가 있습니다. 영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큰 재난이었지만 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요.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아침에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구 바오로 성당으로 불이 옮겨 붙고 다섯 시간 만에 삼백여 채의 집을 태워 버립니다. 화재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런던의 4분의 3이 불에 탔습니다. 87개의 교구교회와 1만3천여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큰 화재였을 겁니다. 나중에 시카고도 대화재가 있었지만 그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지요.

주택은 민간 자본이 짓는다 해도 87채의 교구교회는 그럴 수 없죠. 이 중의 45개를 랜이 설계합니다. 15에서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요. 이 시기의 건물 짓는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 동시에 수 십 개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형식을 집중적으로 지은 것은 그 전에 팔라디오 정도였죠. 저렇게 집중적으로는 못 했죠. 세계 건축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죠. 아무튼 저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국의 바로크를 탄생시키게 되지요.

런던 재개발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예산은 교회를 다시 짓는 데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짓는 교회들이 새로운 건축 개념들로 랜이 제시를 합니다.

가톨릭 부활을 조금 더 보면 찰스 2세가 있죠. 트로이당이 찰스 2세를 지지하는 당이 됩니다. 트로이당이 가톨릭과 손을 잡고 휘그당이 신교와 손을 잡으면서 정치에서 기독교에 이르는 큰 권력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가톨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보수주의로 흐릅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보수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건축유형들이 창출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정통 고전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프랑스의 것을 혼합해내는 것에 그친 반면 영국은 합리주의나 경험론이 반영된 새로운 교회 창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히 자연과학자였던 랜이 잘 풀어냈습니다. 랜은 기하학적 명쾌함을 건축 조형학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이것을 과학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구조체계로 풀어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상황, 건축가 개인의 능력 등이 잘 맞아 떨어진 시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랜의 건축 구조체계는 다이어그램을 보듯이 명확했고 구조단면적은 꼭 필요한 만큼만 확보되었고 장식은 절제되었습니다.

실내는 밝고 이성적인 분위기, 전형적인 경험론적인 경향이 반영되었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건축의 실내가 여전히 이탈리아 바로크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둔탁한 벽채 구조에서 화려한 장식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영국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본 대로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로얄 채플 같은 곳에는 독립원형기둥만으로 구성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죠.

바로크 전체를 보면 성 베드로 모델이 하나 있죠.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주도적인 경향이었

죠.

그리고 그 옆에 벽채 구조 대신에 장식을 절제하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 이성적인 분위기가 추구하는 분위기가 또 하나의 경향이 있는 거죠. 새로운 경향이 프랑스에서는 약했다면 영국에서는 그것이 주도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점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은 이탈리아 고전주의와 프랑스 고전주의를 혼합해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영국만의 경향이 합쳐지면서 영국만의 바로크가 완성이 되는 거죠.

프랑스가 바로크를 반세기 정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소스 중의 하나였죠. 알프스를 기준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누다 보면 프랑스와 영국도 상당히 다르죠.

그러나 유럽전체를 놓고 알프스를 기준으로 가르면 프랑스와 영국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탈리아의 고전주의를 먼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프랑스의 고민이 일정 부분 영국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과는 많이 다르지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일본을 많이 모방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프랑스 바로크도 일정 부분 선례로 받아들이게 되죠.

영국 바로크는 아카데미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중앙 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가 방사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권력 지향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왕정이 시작되고 교육도 중앙에서 통제하죠. 보자르 시스템은 스튜디오에 먼저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서 평생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스튜디오에 따라 교육방법도 다릅니다. 이 시스템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프랑스 유학 가는 사람들은 어느 교수에게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교수 정하기 전에 이미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고 영미쪽에서는 보는 것이죠. 월 하든지간에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는 그것보다는 특정경향 하나를 쫓아서 평생 가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카데미 중심으로 바로크가 진행이 되었다면 영국은 1768년에 들어서야 아카데미가 설립이 됩니다. 바로크가 다 끝난 다음이지요.

그래서 영국엔 건축가가 많지도 않습니다. 랜도 복합적이었죠. 랜 다음에 기껏해야 벤 부르

가(Venbrush)와 홉스 모어(Hawksmoor) 정도입니다.

이 두 삶도 랜이 90프로 이상 가르칩니다. 중세 때 프랑스도 사르트르 스쿨이라고 해서 전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는 없었지만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거의 구전으로 가르치는 전통이 강합니다. 교육배경은 독학이거나 알려진 바가 없거나 랜 밑에서 개인적으로 배우는 경우, 셋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아마추어 건축가, 즉 겸업 건축가였지요.

랜은 천문학자였고 아처는 아마추어 건축가, 벤 부르그는 코미디언 작가입니다. 오히려 연극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후크는 지질하자, 텔멘은 놀고먹는 하급귀족, 한량이었죠.

이런 식으로 바로크 건축까지는 아직 중세건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하나의 새로운 건축 양식이 탄생하려면 건물뿐만 아니라 산업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산업의 체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 영국 바로크는 중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중세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첨탑을 즐겨 씁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잘 쓰지 않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 자체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톨릭은 교회, 세속권력은 왕궁, 민간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능유형이 대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모델이 바로 중세입니다. 영국 기준으로 하면 중세이지만 대륙 기준으로 하면 르네상스 때입니다. 1500년대에 기초가 많이 닦입니다. 그러다가 바로크 때 굉장히 많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이 캐슬입니다. 지방권력자들을 위한 캐슬이 많이 지어죠. 프랑스가 중앙 집중이 심했고 그래서 chateau가 몰락하지요. 교회 왕궁 중심에 공공건물들이 세워진 반면 영국에서는 교회, 궁전과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들 중심으로 한 대학교 기능 유형들이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게 됩니다.

◆ 2교시: 영국의 바로크 시대 건축 2

▲ 크리스토퍼 랜의 건축 양식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죠. 크리스토퍼 랜. 이 사람도 참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게 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20살 정도까지 산 것이죠.

랜은 독학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명성에 비해 전기적

사실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1650년대 경부터 건축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방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자였던 그는 당시 파리에 있던 베르니니를 비롯해서 여러 중요 건축가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자연과학적 생각, 영국 사회에 요구되던 새로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물론 프랑스 바로크 건축은 많이 달랐지만 프랑스 건축 또한 그 나름대로 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구현해 내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건축가로 전업할 결심을 합니다. 도면과 관련 자료들을 대거 사서 돌아옵니다.

유럽은 항상 보편성과 지역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EU 통합이 보편적인 흐름이라면 그 안에서의 경제 체제가 지역적 전통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통합해 내느냐가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이자 생명입니다.

랜은 프랑스가 17세기 유럽만의 보편성과 지역성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자국만의 바로크 양식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렇게 돌아와서 영국만의 바로크 건축을 찾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될 사람은 그냥 있어도 됩니다. 런던 화재 이후에 다시 지어진 51채의 교회를 통칭해서 city church, 혹은 london church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랜의 이력에서 80프로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의 디자인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세워져서 실제로 그가 시공, 관리해서 만든 것은 한 이십 여개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 중 일부는 나중에 변형되거나 헐렸기 때문에 지금 런던 시내에는 약 십여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하루 날을 잡고 돌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양과 규모입니다. 십여 채 정도가 랜의 것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중첩되는 것이 성 바오로 성당이죠. 성 바오로 교회는 존스가 설립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런던 대화재 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지요.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이때 city church가 거의 마무리 된 이후에는 대학건물 등을 담당합니다. city church와 성 바오로에서는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한 영국적인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하는 반면 80년대 이후 나이가 좀 들면서 왕실과 대학 건물에서는 대륙에서 유행하던 국제주의 양식을 갖다 쓰는 경향을 보입니다.

1700년대 넘어서면서는 흡스 모어를 고용해서 도면 작업을 다 맡깁니다. 랜의 건물은 city church 유형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하죠. 유형은 쉽게 말해 주제 변주 개념이므로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규칙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것에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내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합일점을 찾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과학자로서도 건축가로서도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질서란 과학적 진리, 자연법칙, 기하학적 법칙, 이성적 합리성 등을 의미하고 혼돈이란 인간적 현상, 예술법칙, 관습미, 직관적 감성 등입니다.

이때의 질서를 이용해서 혼돈을 일정 부문 정리해서 새로운 인공의 질서를 세우는 게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랜은 데카르트파였지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이었으니 다른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크게는 데카르트파였고 특히 건축에서는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에 요구되는 전제적 애국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돔과 볼트를 받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벽채구조, 팬던티브 돔이 표준형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미켈란젤로나 배르니니조차도요. 구아리니나 보로미니가 변형을 하지만 구조 방식이 아니라 골격의 형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랜이 의심을 품는 겁니다. 독립원형기둥만으로 기둥과 돔을 받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랜은 그 자신이 수학자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역학 등의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학사에 보면 랜이 중요하게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술적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역학을 풀고 실제로 실험하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막노동도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예술가도 아니고 두 가지를 모두 알았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든지 근원적 법칙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과학정신의 산물입니다. city church에서 유형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유형의 기준은 기하형태, 평면우형, 천장 유형이 세 가지가 큰 기준입니다.

기하형태는 사각형, 정사각형, 팔각형 등이죠. 그림 826을 보면 대표적인 city church의 유형들이죠. 기하형태는 사각형, 정사각형, 팔각형, 원, 타원 등이죠. 천장은 평천장, 크로스볼트, 배럴 볼트, 돔.

이 세 가지 조합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냅니다. 826 보면 점선이 평면의 천장도를 같이 그린 겁니다. Q를 보면 동심원이고 N은 팔각형이고 P는 원형이죠. 둠이겠죠.

정사각형 윤곽에 그리크로스, 천장은 둠 천장.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합에서 전체적인 공간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모델을 반복해서 증식해서 사용하기에 좋은 방법론이지요. 유형학적 접근은요,

옛날 어느 선배가 주유소를 통째로 맡았습니다. 새로 지은 주유소를 다 짓는 거였는데요. 유형 개념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것에 이것을 써먹기에 좋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저 주유소 브랜드는 광고 인물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주유소만의 건축 트레이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이 되면 지루하니까 상황에 따라 변형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city church가 그 좋은 예가 되지요. 또한 침탑은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죠. 중세의 수직성을 도입한 것이기도 하고 현실적 목적으로서는 좁은 가로에서 교회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었죠.

신교 교회의 기능유형은 지금 보았고 여기에 새로 나타난 개념은 공연성입니다. 이것은 장경주의의 개념을 신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베르니니는 그것을 가톨릭적으로 해석했죠. 랜은 이것을 신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기독교의 권력체계를 보면 영국은 가톨릭 부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신교가 강화가 되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신교의 특징은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중요합니다. 베르니니가 했던 가톨릭 장경주의는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성인이나 예수님의 조각상이었다면 신교에서는 무대 위에 목사를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826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선형인 경우에도 중앙 집중성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라틴크로스 등의 표준 구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대륙에서 쓰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거의 모든 것을 중앙 집중성으로 몰아가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게 하기 위해 이런 공연성을 가미하면서 중앙 집중형 공간으로 집중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표작이 829입니다. 둠을 독립원형기둥만으로 받치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해서 완전히 반구형 둠이 아니라 접시형 돔입니다. 이것을 독립원형기둥만으로 받치는 것은 이 당시의 기술만으로는 랜도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장 무게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접시형 돔을 쓰죠. 실내를 보면 벽채가 하나도 없죠, 기둥 숲입니다. 창면적을 내면서 실내가 굉장히 밝습니다. 장식도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하죠. 밝고 이성적인 분위기, 과학정신에 기초한 경험론적인 장면,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누군가 거기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것이 실내 분위기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기존의 가톨릭의 권위적인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이 성 바오로 성당이죠. 런던을 대표하는 건물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것이었죠. 최근에도 많이 지어졌지만 런던을 대표하는 것은 이것일 테고 기독교 건축에서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버금가는 면에서 중요한 건물이죠.

파리를 대표하는 교회는 노트르담이 될 수밖에 없죠. 런던은 상 바오로라는 거죠. 상당히 오랜 기간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건물이죠. 이미 개축안은 런던 대화재 이전에 시작됩니다. 옛날 상태로 안 된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죠.

그러나 화재 이후 이것이 무의미해지면서 첫 번째 안을 낸 것이 833입니다. 그리크로스에 중앙 집중형이 기본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선형성 요구가 즉 있었기 때문에 네이브에 선형을 더했죠.

가톨릭 쪽에서 들고 일어나죠. 중앙 집중형이 강하고 선형 공간이 없다고 해서요. 반대에 많이 부딪쳐 안을 고칩니다. 그래서 라틴크로스로 바꾼 것이 1675년의 디자인입니다. 허가된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큰 골격으로 잡히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해서 최종안으로 나온 게 835입니다. 가톨릭의 선형요구와 신교의 중앙 집중형 요구를 둘 다 적절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의 전체성을 만족시킨 것은 대규모입니다.

건물 길이가 무려 145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돔을 받치는 2층까지의 외벽 높이는 34미터입니다. 정면도 보면 기본적으로 프랑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신전 파사드 위에 돔을 얹는 겁니다.

프랑스 안들이 수직비례를 선호한 데 비해서 양쪽에 첨탑을 둡니다. 첨탑 자체가 수직성을 도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사각형 비례입니다. 그것을 빼면 수평 비례가 더 크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 모델을 받아들이지만 영국만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로마네스크 때부터 고딕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영국의 수평선 개념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것을 거대공간 개념으로 풀어낸 겁니다. 당시 대륙에서 유행하던 보편성과 영국만의 정서를 구현한 거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침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그랬고 동도 3중동입니다. 실내에서 보면요. 영국만의 특징을 강하게 보강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대학 건물이나 공장 건물에서 대륙에서 유행하던 국제주의 표준양식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 예가 다음 그림이죠.

▲ 영국 바로크 2세대, 홉스 모어와 벤 부르크

그 다음 홉스 모어와 벤 부르크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랜의 뒤를 잇는 바로크의 2세대 건축가들이었습니다.

벤 부르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작가를 겸한 사람이죠. 특히 귀족 세력들을 건축주로 많이 거느렸습니다. 두 사람이 파트너십을 맺죠. 이것도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거장 둘이서 파트너 하는 것이 힘들지요.

벤 부르크는 극작가라서 무대 디자인 등을 통해 영국의 낭만성 개념을 추구했죠. 이런 것을 건축에다가 큰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안을 만들고 시공까지 하는 것이 홉스 모어였습니다.

사실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역할 분담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둘 다 건축가였으면 같이 가기 힘들지요. 그 다음 홉스 모어 같은 경우 랜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영향을 많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자신만의 특징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벤 부르크가 썼던 희곡이 무대에 올려진 장면이 나타난 것이 867입니다.

18세기에 구체적으로 낭만주의로 나타납니다만 이때는 아직 바로크라 그러게 나타나지는 않지요.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건물들의 설계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워드 성채. 블럼하임 궁전이죠.

쟁쟁하던 지방 권력자들의 본거지입니다. 런던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건물을 이 두 파트너가 짓게 되는 거죠.

저작권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보통 두 사람의 공동 저작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시공을 한 것은 홉스 모어이므로 그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기도 하지만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일거리를 만든 것을 벤이지요.

처음에는 벤이 건축을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력이 쌓여서 홉스 모어만큼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챙기더라도 큰 방향에서의 스케치는 했지요. 지금으로 치면 계획설계까지는 그가 했던 것이죠.

랜 이후에 영국 바로크 건축의 2세대가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완성을 한 것이죠.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